

清代の運氣學에 관한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윤창열*

A Study on Five Circuits and Six Qi Learning of Qing Dynasty

Yun Chang-yeol*

Dept. of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The Qing Dynasty experienced a development in Yunqi even greater than in the Ming Dynasty. Popularization and universalization of Yunqi theory led to many books on the subject published, especially with weights on Warm Heat Disease and Pestilence, also giving birth to new Yunqi theories. A study into this development has a great significance in the study of the traditional medicine in Qing.

Methods: The paper studies the Yunqi books published in the Qing dynasty to find out the unique characters of those books. To understand the direction which the Yunqi theory in the Qing period took, the paper also reviewed the positions of different groups, those who were favorable, those who compromised, and those who were unfavorable.

Results: Four directions were taken by the study of Yunqi in the Qing period. First is the systemic study and composition of Neijing's chapter of Yunqi. This direction was taken by Liunaoxiu's *NeijingYunQiBingShi* and *Neijingyunqibiao*, Xuefuchen's *Suwenyunqitushuo*, Zhuenhua's *Suwenyunqianshuo*, an unknown person's *Su wen yunqi chao*, Weigeliu's *Neijingqihuapian*. The second direction is the study of Yunqi in relation with the Warm Heat Disease and Pestilence, which was taken by Mayin lin's *Wuyunliuqiwenyifayuan*, Lumaoyu's *Suwenyipianbingshi*, Litianchi's *Shiyiwenbingqiyunzhengyan lun*, and Wangxun's *Cihangsanyuanfujifang*. The third direction deals with a new Yunqi theory. The Fourth is the explanation of Yunqi in the form of Songs, which was taken by Wuqian's *Yunqiyaojue*, and Wengzao's *Yunqiyaojue*.

Conclusions: Ludachen published Yunqibian, and explained that Haizhouyinmaochen, which is the eclipse's south latitude, becomes Nanzheng, and Southern government, which is the eclipse's north latitude, becomes Northern government. Lumaoyu revealed that the Liuqidasi, founded by Wangpuzhuang, his great grandfather on the mother's side, is in alignment with the theory of Dashitian, used by Liushozhen, Lidongyuan, Zhudanxi, and Zhangjingyue. The representative figure in the favorable view of Yunqi in the Qing period is Wuyang, that of those who compromised is Fengzhaozhang, and that of opposition is Zhangzhuo.

Key Words: YunQiYaoJue(運氣要訣), YunQiBian(運氣辯), NeiJingYunQiBingShi(內經運氣病釋), YunQiDaSiTianLun(六氣大司天論), LiuMaoXiu(陸懋修)

* Corresponding Author : Yun Chang-yeol.

Dept. of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Yongun-dong, Dong-gu, Daejeon.

Tel : 042-280-2601, E-mail : yoony@dku.ac.kr

Received(April 23, 2018), Revised(May 5, 2018), Accepted(May 9, 2018)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1644년 3월 李自成이 이끄는 농민군은 북경을 점령하여 명나라는 멸망하였으나 吳三桂와 손을 잡은 淸나라는 만리장성을 넘어 同年 5月 北京에 進入하여 1911년 辛亥革命으로 통치가 끝날 때까지 250여 년간 중국을 지배하였다.

특히 淸나라의 康熙 雍正 乾隆의 시대에는 중국 최고의 전성시대를 구가하여 문물이 크게 발달하였으며 의학에 있어서도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다. 淸나라 시대의 의학적인 특징은 온병학의 발전, 고증학의 발전에 따른 醫學經典의 탐구 그리고 새로운 의학이론의 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온병학은 葉桂, 余師愚, 薛生白, 陳平伯, 吳鞠通, 王孟英, 周揚俊 등의 전문 연구가들이 출현하여 溫病과 傷寒이 다름을 주장하였고 著書立說하여 溫病學派를 형성하였다. 의학경전을 중시하는 復古主義 의학가들로는 王樸莊, 陸九芝, 徐靈胎, 張隱庵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내경』, 『난경』을 중시하여 이들 책에 註釋을 달거나 내용을 정리하였다. 운기의학 방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多量の 운기전문 서적이 출현하여 운기의학을 다채롭게 발전시켰다. 吳謙의 『運氣要訣』, 陸儋辰의 『運氣辯』, 李天池의 『時疫溫病氣運微驗論』, 韋格六의 『內經氣化篇』, 朱雨琴의 『五運六氣眞訣』, 馬印麟의 『五運六氣瘟疫發源』, 朱咏淸의 『運氣要略』, 陸懋修的 『內經運氣病釋』 등은 淸나라 때 나온 대표적인 운기서적이라 할 수 있다. 淸나라 때는 새로운 운기이론이 등장하였는데 陸儋辰의 黃道南緯爲南政 北緯爲北政說과 陸懋修的 六氣大司天論 등은 淸대에 출현한 대표적인 新運氣理論이다. 이에 淸나라 御醫들의 교과서였던 『醫宗金鑑』 속에 있는 『運氣要訣』과 陸儋辰의 『運氣辯』 그리고 陸懋修的 운기학에 대한 업적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淸나라 때 의가들 중에서 운기를 절대 신봉하는 천성파의 주장, 운기에 너무 구애받아서 안 된다고 하는 절충파의 주장 그리고 운기를 부정하는 부정파의 의견을 통해 淸대 운기학을 조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淸대에 간행된 모든 운기서적을 도표로 만들어 淸대 운기학의 전체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본고를 전개하였다. 淸대의 운

기학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최초로 연구되는 논문이고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II. 淸대의 대표적인 운기서적

1. 吳謙의 運氣要訣

1) 概說

『運氣要訣』은 『醫宗金鑑』 속에 收載되어 있다. 『醫宗金鑑』은 淸나라 乾隆帝의 명에 의해 편찬한 90卷으로 이루어진 대형의 綜合醫學全書로 淸대 御醫들의 교과서였다. 『運氣要訣』의 저자는 吳謙(1689~1748)으로 字는 六吉이고 安徽 翁縣人이며 大醫院院判을 지냈다.

『運氣要訣』은 1卷으로 의종금감 35卷에 있으며 『素問』의 오운육기이론을 闡發한 것이다. 凡例에서 편찬자 御醫 吳謙 등은 『運氣要訣』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천시가 고르지 않은 것은 民病이 생겨나는 이유이다. 『素問』에 오운육기를 말한 것이 아주 상세하니 의사가 이것에 밝지 못하면 尙海승제의 이치와 음승음복의 이치를 알지 못할 것이니 훌륭한 의사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전의 문장이 여러편에 흩어져서 나타나 학자들이 매양 능력이 부족함을 탄식하게 된다. 이제 이를 수집하여 책을 만들어 학자들로 하여금 장차 한 번 보지만 하면 빠짐이 없게 하고자 하니 아마 쉽게 융회관통하게 될 것이다(天時之不齊는 民病所有生也라 『素問』에 言五運六氣特詳하니 醫不明此면 則不識尙害承制와 淫勝鬱復之理니 不足以稱醫之良也라 但經文은 散見諸篇하야 學者 每有望洋之歎이라 今搜集成篇하야 俾一覽無遺하니 庶易於融會貫通이라)¹⁾

오운육기학설은 비록 『내경·소문』에 실려 있으나 체계적으로 논술을 하지 않아 各篇에 散見하여 학자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하기가 불편하다. 본서는 『내경』속의 운기와 관련된 학설들을 하나로 모아 편찬

1) 吳謙등편. 어찬의종금감. 서울. 법민문화사. 2006. p.11.

하였고 또한 도표와 注釋을 보충하여 오운육기학설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하여 초학자들이 배우고 연구하는데 편리하게 하였다. 『運氣要訣』의 최대의 특징은 학자들이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七言八句의 歌訣형식으로 편찬한 것이다. 치우친 내용은 버리고 精粹만을 뽑아 모았으며 간단하게 요점만을 기술하였고 암송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2) 운기요결의 특징적인 내용

오운육기학설은 음양오행을 핵심으로 삼고 天人相應의 全一개념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오운육기설은 오운과 육기로 구성된다. 오운의 運은 운행의 뜻이고 오운은 木火土金水를 가리키며 지구 밖 태양계의 행성운행규율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五種現象이다. 육기의 氣는 大氣이고 厥陰風木, 少陰君火, 少陽相火, 太陰濕土, 陽明燥金, 太陽寒水를 가리키며 기후변화를 형성하는 空氣의 形態因素이다. 자연계에는 오운육기의 변화가 있고 인체에도 五臟之氣와 삼음삼양 六經之氣의 운동이 있다. 자연계의 오운육기변화와 인체의 오장육경의 氣의 운동은 內外가 서로 相通相應한다. 따라서 자연계의 오운육기는 인체의 오장육경의 氣의 생리, 병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運氣合臟腑十二經絡歌」와 注釋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의사는 음양오행의 이치에 밝아야만 비로소 天時와 民病의 淸황을 알 수가 있다. 오운은 오행 오기로부터 化生되었고 육기는 천지 음양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火는 運化, 상화와 熱氣, 暑氣로 나뉘어 저서 사람의 장부, 경맥과 합치가 된다. 천간은 오운을 일으키고 지지는 육기를 일으키며 天五 地六이 만나 天六 地五의 節制가 이루어져서 60갑자가 이루어진다.(醫明陰陽五行理라야 始曉天時民病情이라 五運五行五氣化오 六氣天地陰陽生이라 火分君相氣熱暑하야 爲合人之臟腑經이라 天干起運地支氣오 天五地六節制成이라)

【注釋】 의업을 배우는 자는 반드시 천지의 음

양과 오행의 이치를 밝게 알고 있어야만 비로소 천지의 知不知와 백성들이 병이 생기는 淸황과 이유를 알게 된다. 사람들이 모두 오운이 오행, 오질, 오기로부터 化生된 것은 알되 육기가 천지음양, 육질, 육기로부터 化生된 것은 알지 못하고 있다. 六質은 『내경』에서 말하기를 “목화토금수화는 땅의 음양이니 생장화수장이 아래에서 응하고 있다”고 하였고 육기는 내경에서 말하기를 “풍, 서, 습, 조, 한, 화는 하늘의 음양이니 삼음삼양이 위로 받들고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땅에 있는 불은 運化 상화로 나뉘고 하늘에 있는 기운은 熱氣와 暑氣로 나뉘어 사람의 오장육부와 심포락을 포함한 12경맥에 합하고 있다.

천간의 음양은 합해서 다섯이 되니 따라서 오운을 주하니 甲이 양토로 化함에 사람의 胃와 합하고 己가 음토로 化함에 사람의 脾와 합하며, 乙이 음금으로 化함에 사람의 肺와 합하고 庚이 양금으로 化함에 사람의 大腸과 합하며, 丙이 양수로 化함에 사람의 방광과 합하고 辛이 음수로 化함에 사람의 腎과 합하며, 丁이 음목으로 化함에 사람의 肝과 합하고 壬이 양목으로 化함에 사람의 膽과 합하며, 戊가 양화로 化함에 사람의 소장과 합하고 癸가 음화로 化함에 사람의 心과 합하며, 相火가 양에 속하는 것은 사람의 삼초와 합하고 相火가 음에 속하는 것은 사람의 심포락과 합하니 이것이 천간이 사람의 오장육부 십이경맥에 합하는 것이다.

地支의 음양은 합해서 여섯이 되기 때문에 六氣를 주한다. 자오는 少陰君火를 주하니 사람의 心과 小腸에 합하고, 丑未는 太陰濕土를 주하니 사람의 脾와 胃에 합하고 寅申은 少陽相火를 주하니 사람의 三焦와 包絡에 합하고, 卯酉는 陽明燥金을 주하니 사람의 肺와 大腸에 합하고, 辰戌은 太陽寒水를 주하니 사람의 방광과 腎에 합하고, 巳亥는 厥陰風木을 주하니 사람의 肝과 膽에 합하니 이것이 지지가 사람의 오장육부 십이경맥에 합하는 것이다. 天數가 다섯에 오음오양이 있기 때문에 십간이 되고 地數가 여섯에 육음육양이 있기 때문에 십이지가 된다. 천간의 5는 반드시 지지의 6을 얻어 節을 삼고 지지의 6은 반드시 천간의 5를 얻어 制를 삼은 뒤에 6 甲이 이루어지고 歲氣가 갖추어진다. 그러므로 一歲

의 中運은 72일 5위로 나누어 주관하고 육기는 60일 6步로 나누어 주관한다.(學醫業者는 必要明天地陰陽과 五行之理라야 始曉天時之和不和와 民之生病之情由也라 人皆知五運化自五行, 五質, 五氣也로대而不知六氣化自天地陰陽, 六質, 六氣也라 六質者는 即經曰木, 火, 土, 金, 水, 火는 地之陰陽也니 生, 長, 化, 收, 藏이 下應之也라 하고 六氣者는 即經曰風, 暑, 濕, 燥, 寒, 火는 天之陰陽也니 三陰三陽이 上奉之也라하니라 是以로 在地之火는 分爲君火, 相火오 在天之氣는 分爲熱氣, 暑氣하야 爲合人之五臟六腑와 包絡十二經也라 天干陰陽은 合而爲五 故로 主五運이니 甲化陽土에 合人之胃하고 己化陰土에 合人之脾하며 乙化陰金에 合人之肺하고 庚化陽金에 合人大腸하며 丙化陽水에 合人膀胱하고 辛化陰水에 合人之腎하며 丁化陰木에 合人之肝하고 壬化陽木에 合人之膽하며 戊化陽火에 合人小腸하고 癸化陰火에 合人之心하며 相火屬陽者는 合人三焦하고 相火屬陰者는 合人包絡이니 此天干合人之五臟六腑十二經也라 地支陰陽은 合而爲六 故로 主六氣라 子午主少陰君火하니 合人之心與小腸也오 丑未主太陰濕土니 合人之脾與胃也오 寅申主少陽相火니 合人之三焦包絡也오 卯酉主太陽燥金이니 合人之肺與大腸也오 辰戌主太陽寒水니 合人之膀胱與腎也오 巳亥主厥陰風木이니 合人之肝與膽也니 此地支之合人五臟六腑十二經也라 天數五에 而五陰, 五陽 故로 爲十干이오 地數六에 而六陰, 六陽 故로 爲十二支라 天干之五는 必得地支之六하야 以爲節하고 地支之六은 必得天干之五하야 以爲制 而後에 六甲成하고 歲氣備라 故 一歲中運은 以七十二日五位로 分主之하고 六氣는 以六十日六步로 分主之也니라)²⁾

Fig. 1. A picture that Five Circuits combining with the viscera and twelve channels.(五運이 臟腑와 12經絡과 합하는 그림-五運合臟腑十二經絡圖)



Fig. 2. A picture that Six Qi combining with the viscera and twelve channels.(六氣가 臟腑와 12經絡과 합하는 그림-六氣合臟腑十二經絡圖)



천간과 지지에 이와 같이 장부를 배합하여 설명한 것은 이 책이 처음인 듯하다.

이어서 「執法行令貴人歌」와 그 注釋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부는 집법이니 사천을 범한 것이고 세회는 행령이니 재천을 범한 것이다. 태을천부는 귀인이니

2) 吳謙著, 趙曉魚정리. 四診運氣心法要訣. 북경. 중국의약과학 출판사. 2012. pp.55-56.

사천 재천을 범한 것이니 속히 진행되어 위태롭고, 천천히 지속되고, 갑자기 죽는 예후가 있다. 二火가 相臨하는 것은 비록 相得이나 君臣사이에는 順逆하는 혐의가 있다. 順하면 병이 멀리 떠나 해로움이 적고 逆하면 병이 가까이 다가와 해로움이 빠르게 사람에게 침범한다(天符執法犯司天이오 歲會行令犯在泉이라 太乙貴人犯天地나 速危徐持暴死占이라 二火相臨雖相得이나 然有君臣順逆嫌이라 順則病遠其害小오 逆則病近害速纏이라)

【注釋】 邪氣가 사람에게 침범할 때 天符年이면 中執法이라 하니 사천의 天氣를 범한 것이다. 天은 陽이니 양의 성질은 빠르기 때문에 그 병이 빠르게 진행되고 위태롭게 된다. 사기가 사람에게 침범할 때 歲會年이면 中行令이라고 부르니 재천의 地氣를 범한 것이다. 地는 陰이니 음의 성질은 느리기 때문에 그 병이 천천히 진행되고 계속된다. 사기가 사람에게 침범할 때 太乙天符年이면 中貴人이라고 부르니 사천, 재천의 기운을 범한 것이다. 천지의 기운을 모두 범했기 때문에 그 병이 갑자기 진행되어 죽게 된다. 二火는 卦화, 상화니 비록 같은 기운으로 相得이나 君臣사이에는 順逆의 관계가 성립하니 반드시 알아야 한다. 卦화는 임금이요 상화는 신하니 二火相臨은 司天이 中運의 六步에 가림하는 것이다. 客主加臨에 卦화는 위에 있고 상화는 아래에 있어 君臨臣이면 順이 되니 順하면 병이 멀리 떠나서 그 해로움이 적고 상화가 위에 있고 卦화가 아래에 있어 臣犯君이면 逆이 되니 逆하면 병이 가까이 다가와 그 해로움이 빠르게 된다(邪之中人에 在天符之年 하면 名曰中執法이니 是犯司天天氣라 天은 陽也니 陽性速 故로 其病이 速而危也라 邪之中人에 在歲會之年 하면 名曰中行令이니 是犯在泉地氣라 地는 陰也니 陰性徐 故로 其病이 徐而持也라 邪之中人에 在太乙天符之年이면 名曰中貴人이니 是犯司天, 在泉之氣라 天地之氣俱犯 故로 其病이 暴而死也라 二火는 君火, 相火也니 雖同氣相得이나 然이나 有君臣順逆之嫌하니 不可不知也라 君火는 君也오 相火는 臣也니 二火相臨은 謂司天加臨中運六步라 客主加臨에 君火在上하고 相火在下하야 爲君臨臣則順이니 順則病遠

하야 其害小也오 相火在上하고 君火在下하야 爲臣犯君則逆이니 逆則病近하야 其害速也라)³⁾

천부년의 병을 사기가 司天之氣를 범한 것이라 하고 세회년의 병을 사기가 在泉之氣를 범한 것이라 하고 태을천부년의 병을 사기가 司天在泉之氣를 범한 것이라 하는 것도 이 책의 독창적인 주장이다.

끝으로 「運氣爲病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운육기의 병이 비록 목화토금수와 풍화습조한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병이 되는 정황은 동일하다. 이에 木運之病과 風氣之病, 火運之病과 暑氣之病, 土運之病과 濕氣之病, 金運之病과 燥氣之病, 水運之病과 寒氣之病을 총괄귀납하여 하나의 병으로 삼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風症으로 떨리고 어지러운 것은 肝木에 속하고 모든 갑작스럽게 강직이 온 것은 풍이 원인이다. 四支痛, 筋軟, 乖戾, 轉側이 어려운 것과 속에서 당기고 굳이 오그라들고 兩脇痛도 여기에 속한다(諸風掉眩은 屬肝木하고 諸暴強直은 風所因이라 支痛軟戾難轉側과 裏急筋縮兩脅疼이라)

【注釋】 하늘에서는 風이 되고 땅에서는 木이 되고 사람에서는 肝이 되고 오체에서는 筋이 된다. 풍기는 肝과 통하기 때문에 모든 풍이 일으키는 병은 다 肝木에 속한다. 掉는 흔들리는 것이고 眩은 어지러운 것이다. 風은 움직이고 도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병을 일으키면 머리와 몸이 움직이고 눈이 안보이면서 어지럽게 된다. 暴은 갑자기라는 뜻이다. 強直은 筋이 병든 것이니 뻣뻣하고 당겨서 부드러워지 않은 것이다. 風의 성질은 굳세고 당기니 風이 筋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병이 들면 갑자기 筋이 당기면서 뻣뻣해지는 것이다. 사지가 당기면서 아픈 것과 筋이 부드러워 짧아지는 것과 乖戾失常과 몸을 돌리기 어려운 것과 속이 당기고 옆구리가 아픈 것이 또한 모두 風이 筋을 손상시켜 돌아들어가서 속

3) 吳謙저, 趙曉魚정리. 四診運氣心法要訣. 북경. 중국의약과기 출판사. 2012. p.72-73.

에서 병을 만든 것이다(在天爲風이오 在地爲木이오 在人爲肝이오 在體爲筋이라 風氣는 通於肝 故로 諸風爲病은 皆屬於肝木也라 掉는 搖動也오 眩은 昏運也라 風主動旋 故로 病則頭身搖動하고 目昏眩運也라 暴은 猝也라 強直은 筋病이니 強急不柔也라 風性動急하니 風入於筋 故로 病則卒然筋急強直也라 其四肢拘急疼痛과 筋軟短縮과 乖戾失常과 難於轉側과 裡急脅痛이 亦皆風傷其筋하야 轉入裡病也라)4)

모든 동통, 가려움증, 종기는 心火에 속하고 모든 열증, 혼모하여 불성인사, 말을 못하는 것,躁症, 섬어, 발광증과 갑자기 하는 설사, 이급후중, 신물과 쓴물을 토하는 것과 가슴과 등이 관통하여 아픈 것, 피가 나오는 병이 이에 속한다(諸痛癢瘡屬心火오 諸熱昏瘡躁譫狂이라 暴注下迫嘔酸苦와 膺背微痛血家殃이라)

【注釋】 하늘에서는 열이 되고 땅에서는 火가 되고 사람에서는 心이 되고 오체에서는 脈이 된다. 熱氣는 心과 통하기 때문에 모든 火病, 통증, 가려움증, 종기는 모든 心火에 속한다. 열이 미약하면 건조해져서 피부가 가렵다. 열이 심하면 타올라 피부가 아프다. 열이 경맥에 들어가 血과 응결되면 가벼우면 癰이 생기고 깊으면 疔가 되며 더욱 깊이 들어가면 장부가 손상된다.

心은 神을 藏하니 열이 心을 침범하면 정신이 밝지 못해 昏冒하여 不省人事가 된다.

心은 言을 主하니 열이 心을 침범하면 정신이 구별을 하지 못해 말을 하지 못하거나 혹 妄言하고 譫語를 한다. 火는 動을 主하니 열이 身을 침범하면 몸을 움직임에 편하지 못하므로 몸이 躁擾하고 움직이는 것이 심하면 광증이 발작한다. 暴注는 갑자기 水瀉를 하는 것이니 火와 水가 병이 된 것이다. 下迫은 이급후중이니 火와 氣가 병든 것이다. 酸苦를 구토하는 것은 火가 胃를 병들게 한 것이다. 膺背微痛은 火가 가슴을 손상시킨 것이다. 血家殃은 열이 맥속으로 들어가면 血이 가득차서 넘쳐 나오니 위로

넘치지 않으면 아래로 설사하여 모든 失血病이 생기는 것이다(在天爲熱이오 在地爲火오 在人爲心오 在體爲脈이라 熱氣는 通於心 故로 諸火痛癢瘡之病은 皆屬於心火也라 熱微則燥하야 皮作痒하고 熱甚則灼하야 膚作痛이라 熱入經脈하야 與血凝結하면 淺則爲癰하고 深則爲疔하며 更深入之면 則傷臟腑라 心臟神하니 熱乘於心이면 則神不明 故로 昏冒不省人事也라 心主言하니 熱乘於心이면 則神不辨 故로 瘡而不能言커나 或妄言而譫語也라 火主動하니 熱乘於身이면 則身動而不寧 故로 身躁擾하고 動甚則發狂也라 暴注者는 猝暴水瀉니 火與水爲病也라 下迫者는 後重裏急이니 火與氣爲病也라 嘔吐酸苦는 火病胃也라 膺背微痛은 火傷胸也라 血家殃者는 熱入於脈이면 則血滿勝이니 不上溢則下瀉하야 而爲一切失血之病也라)5)

모든 습과 부종 창만은 脾土에 속하고 枵飢, 積飲, 痞症, 변비로 인한 동통, 食少, 몸이 무거운 것, 사지불거, 복만, 장명, 자주 손실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諸濕腫滿屬脾土오 霍亂積飲痞閉疹과 食少體重肢不舉와 腹滿腸鳴泄澀頻이라)

【注釋】 하늘에서는 濕이 되고 땅에서는 土가 되고 사람에서는 脾가 되고 오체에서는 肉이 된다. 濕氣는 脾에 통하기 때문에 모든 습병은 다 脾土에 속한다. 습이 內外에 쌓였기 때문에 살이 붓고 腹滿하게 된 것이다. 飢이 안에서 요란하게 되어 枵飢병이 생긴 것이고 脾가 健運함을 잃어 積飲증이 생긴 것이다. 脾氣가 응결되어 痞硬과 便閉가 생겨 아픈 것이다. 脾는 오곡의 소화를 주관하니 병들면 음식을 적게 먹는다. 脾는 기욕을 주관하니 濕이 盛하여 몸이 무거워진 것이다. 脾는 사지를 주관하니 사지 불거는 또한 濕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脾는 腹을 주관하고 濕이 넘치면 腹疾이 생기기 때문에 복만, 장명, 손실증이 생긴 것이다(在天爲濕이오 在地爲土오 在人爲脾오 在體爲肉이라 濕氣는 通於脾 故로 諸濕爲病은 皆屬於脾土也라 濕蓄內外 故로 肉腫腹滿也오 飢亂於中 故로 病霍亂也오 脾失健運 故로 病積飲

4) 吳謙저, 趙曉魚정리. 四診運氣心法要訣. 북경. 중국의약과기 출판사. 2012. pp.84-85.

5) 吳謙저, 趙曉魚정리. 四診運氣心法要訣. 북경. 중국의약과기 출판사. 2012. p.85.

也오 脾氣凝結 故로 病痞硬使閉而痛也라 脾主化穀하니 病則食少也라 脾主肌肉하니 濕勝故로 身重也라 脾主四肢하니 四肢不舉는 亦由濕使然也라 脾主腹하고 濕淫腹疾 故로 腹滿, 腸鳴, 飧泄也라)⁶⁾

모든 氣病, 氣가 逆上하여 울체된 것, 肺痿症은 肺金에 속하고 천식, 기침, 痰涎, 血氣가 逆하는 병이 생긴다. 모든 燥澀, 燥潤, 乾勁症과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들리는 것 肩症 臂症이 이에 속한다(諸氣 臆鬱痿肺金이오 喘咳痰血氣逆生이라 諸燥澀枯潤乾勁과 皴揭皮膚肩臂疼이라)

【注釋】 하늘에서는 燥가 되고 땅에서는 金이 되고 사람에서는 肺가 되고 오체에서는 皮가 된다. 燥氣는 肺와 통하기 때문에 모든 燥氣가 일으키는 병은 다 肺金에 속한다. 臆鬱은 기가 逆上해서 胸滿하여 울체되어 퍼지지 않는 것이다. 痿는 肺痿症으로 기침하는 것이니 탁한 痰涎을 뱉어내는 것이 그치지 않는 것이다. 천식, 해수, 기억과 담연과 血을 뱉어내는 것은 모두 肺病이다. 모든 澀症, 枯潤, 乾勁症은 모두 燥氣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乾勁은 強直과 비슷하니 모두 筋勁症이다. 따라서 갑자기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흔히 풍사가 침입하여 筋勁症이 생긴 것이고 오래된 것은 흔히 枯燥해서 筋勁症이 생긴 것이다. 皴은 피부가 주름지고 澀하게 된 것이고 揭는 피부가 들려서 일어난 것이니 이것은 燥氣가 박을 병들게 한 것이고 비통과 건통은 또한 燥氣가 경맥을 병들게 한 것이다(在天爲燥오 在地爲金이오 在人爲肺오 在體爲皮라 燥氣는 通於肺故로 諸燥氣爲病은 皆屬於肺金也라 臆鬱은 謂氣逆胸滿하야 臆鬱不舒也라 痿는 謂肺痿咳嗽니 唾濁痰涎不已也라 喘咳氣逆과 唾痰涎血은 皆肺病也라 凡澀枯潤乾勁은 皆燥之化也라 乾勁은 似乎強直하니 皆筋勁病也라 故猝然者는 多風入而筋勁也오 久之者는 多枯燥而筋勁也라 皴은 膚皴澀也오 揭는 皮揭起也니 此燥之病乎外也오 臂痛肩痛也는 亦燥之病於經也라)⁷⁾

6) 吳謙저, 趙曉魚정리. 四診運氣心法要訣. 북경. 중국의약과기 출판사. 2012. p.85.

7) 吳謙저, 趙曉魚정리. 四診運氣心法要訣. 북경. 중국의약과기 출판사. 2012. pp.85-86.

모든 寒症, 수축되어 당기는 것은 腎水에 속하고 비린내와 더러운 것을 구토 설사하는 것, 맑고 찬 것과 사지가 찬 것, 수축되어 당기는 것, 굳고 단단한 것, 뼈마디가 아픈 것과 징가, 퇴산, 배가 당기고 단단한 것이 여기에 속한다(諸寒收引屬腎水오 吐下腥穢微清寒이라 厥逆禁固骨節痛과 癥瘕癰疽腹急堅이라)

【注釋】 하늘에서는 寒이 되고 땅에서는 水가 되고 사람에서는 腎이 되고 오체에서는 骨이 된다. 寒氣는 腎과 통하기 때문에 모든 寒氣가 일으키는 병은 다 腎水에 속한다. 收는 수렴, 수축하는 것이고 引은 당기는 것이다. 腎은 水에 속하고 그 변화는 寒이 되니 수축되고 당기는 것은 寒이 일으키는 것이다. 熱의 변화는 酸苦를 吐下하기 때문에 寒의 변화는 비린내와 더러운 것을 吐下한다 熱의 변화는 水液이 혼탁하기 때문에 寒의 변화는 맑고 깨끗하고 차다. 厥逆은 사지가 찬 것이다. 禁固는 수축되고 당기고 단단하고 굳센 것이다. 寒이 밖에서 손상시키면 뼈마디가 아프고 寒이 안에서 손상시키면 징가, 퇴산, 배가 당기면서 단단하고 아프게 된다(在天爲寒이오 在地爲水오 在人爲腎오 在體爲骨이라 寒氣는 通於腎 故로 諸寒氣爲病은 皆屬於腎水也라 收는 斂也오 引은 急也라 腎屬水하고 其化寒하니 斂縮拘急은 寒之化也라 熱之化는 吐下酸苦 故로 寒之化는 吐下腥穢也라 熱之化는 水液渾濁 故로 寒之化는 澄徹清冷也라 厥逆은 四肢冷也라 禁固는 收引堅勁이라 寒傷於外 則骨節痛也오 寒傷於內 則癥瘕, 癰疽, 腹急堅痛也라)⁸⁾

2. 陸儋辰의 運氣辯

陸儋辰(1777~1842)의 字는 筦泉이고 別號는 耳鄉이며 清代 郡의 廩生(청대에 관청에서 돈과 양식 등을 지급한 生員)으로 강소성 海安縣 사람이다.

그는 공부를 좋아하여 보지 않은 책이 없었고 더욱 의학에 힘을 기울였다. 『運氣辯』은 그가 1837년에 지은 책으로 財力이 不足하여 生前에는 간행되지

8) 吳謙저, 趙曉魚정리. 四診運氣心法要訣. 북경. 중국의약과기 출판사. 2012. p.86.

못하였고 民國初年에 이르러 같은 마을의 清代 舉人이며 江蘇省 省長을 지냈던 韓國鈞이 지방의 문헌을 보전하기 위해 文史資料를 수집할 때 처음으로 『海陵叢書』에 收入되 간행이 되었다. 그러나 『海陵叢書』가 작은 지역의 文史叢書였으므로 널리 流傳되지는 못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太極, 八卦, 河圖, 洛書, 干支를 運氣와 결합하여 설명한 것이고 南北政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1) 黃道南緯爲南政, 北緯爲北政說

그는 『辯南政北政』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른바 ‘政’은 실상 삼음삼양의 三之氣가 天政을 편다는 ‘政’이오 이른바 ‘남북’은 歲陰에 光道가 左行할 때 사람이 面南面北하는 것이니 보는 자리에서 그 자리의 남북을 命名하는 것이다. 시험삼아 상세히 분석해 보겠다. 기백이 말하기를 “그 해의 사천 재천에 음양이 있는 곳을 보는 것이니 사천이 꺾음이면 天之左間이 소음이고 天之右間이 태양이다라고 말할 곳으로부터 이른바 北面하여 그 자리를 명명하여 그 나타난 것을 말할 것입니다”까지의 내용은 이것은 북쪽을 보면서 나타난 바의 사천의 자리를 가리킨 것이다. 또 말하기를 “꺾음 사천하면 소양이 재천하고 地之左間은 양명이고 地之右間은 태음이다라고 말할 곳으로부터 이른바 面南하여 그 자리를 명명하여 그 나타난 것을 말할 것입니다”까지의 내용은 이것은 남쪽을 보면서 나타난 바의 재천의 자리를 가리킨 것이니 “少陽之右에 陽명이 다스린다”의 단락과 더불어 互文으로 뜻을 나타낸 것이다. 남쪽을 보기 때문에 사천은 右行하고 재천은 左行한다. 또 말하기를 “빛이 옮겨감에 따라 자리를 정하여 똑바로 서서 기다린다”고 하였으니 日光이 옮겨감에 따라 그 이르는 것을 기다리면 그 해를 파악하고 육보를 파악하는 자리가 모두 결정된다고 결론적으로 말한 것이다. 기백의 말을 통해 해석해보면 이미 연연중에 歲政의 남북이 나뉘어 진다. 살펴보면 태양은 中道가 있으니 즉 황도이고 또 光道라고도 부르니 적도의 남북에서 발동하고 수렴된다. 적

도의 남북에서 지평선을 보면 높고 낮은 것이 다르고 황도의 높고 낮은 것이 적도와 교차하면 남북이 다르게 된다. 기백이 말하기를 “현명의 오른쪽은 卦中으로부터 巳中에 이르기까지가 황도의 子位로 卦中에 해당된다. 또한 황도의 子는 적도의 巳에 加하고 황도의 丑는 적도의 午에 加하는 것 등이니 땅은 하늘을 따르고 지지는 천간을 따르는 것이 歲支의 德이 되고 적도의 巳午가 황도의 子丑를 얻는 것 등이 龍德紫微가 되니 바로 歲陰에 나아가 황도의 定位로써 말한 것이다.

대개 歲支의 南北對待는 기운이 하나로 관통하되 둘로 나누어지니 六氣가 유행하는 것이요 또 그 해의 남북을 본다고 말하는 것이다. 南은 즉 황도의 南緯니 수성 辰宮에서 시작하여 추자 亥宮에 이르니 해자축인묘진이 모두 남쪽에 자리한다. 예를 들어 南政에 꺾음이 사천하면 初氣는 卯요 二氣는 辰이오 三氣는 天政이니 亥요 四氣는 子니 子는 右寸에 응한다. 꺾음재천하면 子는 左尺에 응한다. 사람이 남쪽을 보면서 그 자리를 명명한 것이니 남쪽이 陽이 되고 上이 되고 寸이 되기 때문에 사천이 寸에 응하고 재천이 尺에 응한다. 北은 즉 황도의 北緯니 강루 戌宮에서 시작하여 순미 巳宮에 이르니 사오미신 유술이 모두 북쪽에 자리한다. 예를 들어 北政에 꺾음이 사천하면 初氣는 酉요 二氣는 戌이요 三氣는 天政이니 巳요 四氣는 午니 午는 左尺에 응하고 꺾음이 재천하면 午는 右寸에 응한다. 사람이 북쪽을 보면서 그 자리를 명명한 것이니 북쪽이 陰이 되고 下가 되고 尺이 되기 때문에 사천이 尺에 응하고 재천이 寸에 응한다. 어찌 歲陰이 光道를 따라 宮을 옮겨 그 해를 세워서 그 氣를 아는 것이 아닌가(所謂 “政”은 實三陰三陽三之氣 天政布之政이오 所謂 “南北”은 卽歲陰에 在光道左行할새 人面南面北이니 于所見에 命其位之南北이라 試詳析之하노라 岐伯曰 歲上下에 見陰陽之所在니 諸上見厥陰 左少陰 右太陽으로 至所謂面北而命其位하야 言其見也는 此指面北所見天司之位라 又曰 厥陰在上 則少陽在下 左陽明 右太陰으로 至所謂面南而命其位하야 言其見也는 此指面南所見在泉之位니 與“少陽之右 陽明治之”一段

으로 互文見義라 面南故로 上者右行하고 下者左行也라 又曰 移光定位하야 正立而待之라하니 結言于日光之所移而待其至하면 則紀歲紀步之位悉定이라 由岐伯之言으로 釋之하면 已隱分出歲政之南北矣라 按컨대 日有中道하니 卽黃道요 一曰光道니 發斂于赤道南北이라 赤道之南北에 視地平하면 而高卑異하고 黃道之高卑가 交赤道하면 而南北異라 岐伯曰 顯明之右는 君火之位라하니 乃地理東南으로 自卯中至巳中이 當黃道子位君火也라 且黃道子는 加赤道巳하고 黃道丑은 加赤道午等이니 地從天하고 支從干이 爲歲支德이오 而赤道巳午가 得黃道子丑等이 爲龍德紫微니 正就歲陰이 在黃道之定位而言이라 蓋歲支 南北對待는 氣一貫而兩分하니 所以六氣流行이오 又曰視歲南北也라 南은 卽黃道南緯니 起壽星辰宮하야 至姤訾亥宮하니 亥子丑寅卯辰이 皆位南이라 如南政厥陰司天하면 初氣卯오 二氣辰이오 三氣天政亥오 四氣子니 子應右寸이오 厥陰在泉하면 子應左尺이라 人面南而命其位니 南爲陽 爲上 爲寸 故로 司天應寸而在泉應尺이라 北은 卽黃道北緯니 起降婁戌宮하야 至鶉尾巳宮이니 巳午未申酉戌이 皆位北이라 如北政厥陰司天하면 初氣酉오 二氣戌이오 三氣天政巳오 四氣午니 午應左尺이오 厥陰在泉하면 午應右寸이라 人面北而命其位니 北爲陰 爲下 爲尺 故로 司天應尺而在泉應寸이라 豈非歲陰이 循光道移宮하야 立其年而知其氣歟아)9)

남북정의 기준에 대해서 왕빙은 甲己年이 남정이 되고 나머지 해가 북정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한의학계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뒤 張隱庵은 戊癸年이 남정이 되고 나머지 해가 북정이 된다고 하였으며 이 외에도 몇 가지 설이 더 있다. 陸儋辰은 黃道の 南緯에 해당하는 亥子丑寅卯辰의 해가 남정이 되고 巳午未申酉戌의 해가 북정이 된다고 하였는데 독창적인 주장이고 任應秋 등은 이 설을 추종하고 있다.

2) 洛書의 數로 南政北政의 원리를 밝힘

陸儋辰은 범례에서 “『素問』의 運氣七篇은 숫자에

의거해서 이치를 해석한 것이다. 대개 하늘은 6으로 마디를 삼고 땅은 5로써 마디를 삼으니 그러므로 하늘이 氣를 펴며 모두 오행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람은 氣交에 위치하고 있으니 어찌 능히 육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오(『素問』運氣七篇은 據數析理라 蓋天은 以六節하고 地는 以五制하니 所以蒼天布氣에 總不外于五行하고 人在氣交하니 詎能違乎六氣리오)10)라고 하였다.

그는 『辯地化數正對』에서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하도·낙서는 數의 근원을 말하고 있다. 하도는 좌측으로 돌면서 相生하고 다섯 개의 생수가 다섯 개의 성수를 통솔하고 있다. 낙서는 마주보는 것이 상생하고 생성수가 하도와 숫자가 같으나 하도와 같은 자리에는 있지 않고 사정방과 사간방에서 오행이 각각 마주보면서 돌고 있으니 더욱 분명하게 운기에分配된 화생수와 상합한다.

亥는 좌측의 3이니 하늘이 생한 것이고子是 우측의 7이니 하늘이성한 것이고 丑은 중앙의 5이니 하늘이 생한 것이고 寅은 하늘이성한 君火 子를 쫓으니 또 7이고 卯는 9를 이고 있으니 하늘이성한 것이고 辰은 1을 밟고 있으니 하늘이 생한 것이다. 자리가 사정방에 있음에 3과 7, 9와 1을 합하면 각각 10이요 가운데의 5를 더하면 각각 15가 된다. 오행의 수가 모두 陽이고 남쪽이 되고 上이 되기 때문에 亥子로 시작되는 육기는 남정이 되고 化生된 수는 홀수를 쓴다.

사의 左足은 8이니 地가성한 것이고 午의 右肩은 2니 地가 생한 것이고 未의 가운데는 5니 地가성한 것이고 申은 地가 생한 君火 午를 쫓으니 또한 2이고 酉의 左肩은 4니 地가 생한 것이고 戌의 右足은 6이니 地가성한 것이다. 자리가 사간방에 있음에 8과 2, 4와 6을 합하면 각각 10이 되고 가운데의 5를 더하면 각각 15가 된다. 오행의 수가 모두 陰이고 북쪽이 되고 下가 되기 때문에 巳午로 시작하는 육기는 북정이 되고 化生된 수는 짝수를 쓴

9) 陸儋辰, 陸正齋원저, 王益謙정리. 運氣辯與臨證錄. 상해. 상해중의학원출판사. 1987. pp.22-23.

10) 陸儋辰, 陸正齋원저, 王益謙정리. 運氣辯與臨證錄. 상해. 상해중의학원출판사. 1987. p.9.

다.

천간의 丁은 왼쪽 3에 加하고 壬은 左足の 8에 배합하니 太少가 또한 같은 원리이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化生된 수의 一定한 象을 얻게 된다. 『내경』에서 하도와 낙서의 이치를 밝혔으니 사람들이 어찌 실마리를 찾아내어 연구하지 않으리오(『河圖』 『洛書』는 言數之祖也라 『河圖』는 以左行相生하고 五生統五成이라 『洛書』는 則以對待相生하고 生成이 與『圖』同數나 不與『圖』同位오 而四正四隅에 五行이 各對待一周하니 更顯與運氣分配之化數로 相合이라 亥左三은 天生也오 子右七은 天成也오 丑中五는 天生也오 寅은 從天成之君火子하니 亦七也오 卯戴九는 天成也오 辰履一은 天生也라 位居四正에 三與七 九與一이 數各十이오 得中五하면 各十五也라 五行之數가 皆陽 爲南 爲上 故로 亥子 六氣는 爲南政이오 化數用奇라 巳左足八은 地成也오 午右肩二는 地生也오 未中五는 地成也오 申은 從地生之君火午하니 亦二也오 酉左肩四는 地生也오 戌右足六은 地成也라 位居四隅에 八與二 四與六이 數各十이오 得中五면 各十五也라 五行之數가 皆陰 爲北 爲下 故로 巳午 六氣는 爲北政이오 化數用偶라 以天干丁은 加左三하고 壬加左足八排去하니 太少亦一轍也라 不費辭說이라도 自得化數一定之象이라 『內經』에 發明『河』 『洛』하니 人奈何不紬繹哉리오)11)

그는 낙서에서 亥子丑寅卯辰에 양수를 배합하고 巳午未申酉戌에 음수를 배합하여 亥子丑寅卯辰이 남정이 되고 巳午未申酉戌이 북정이 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3) 天干과 地支의 相合에 대한 闡發

그는 「干支合化解」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내경』에서 “억제를 하여 생하면 化가 이어져 (주석가들이 制生則化를 制則生化라고 바꾸었으나 옳지 않다) 밖으로 盛衰를 벌린다”하니 그 뜻을 미

루어 설명할 수 있다. 木은 오운의 시작이고 壬은 陽干의 끝이다. 만물이 극한 상태에 가면 변하니 그 기운이 動하여 木을 생한다. 이로 말미암아 壬에 木을 배합하고 각각의 천간은 木을 따라 차례로 생하여 운행하게 된다.

壬은 木에 속하고 火를 생하니 癸가 그를 쫓아 火의 자리가 되고 火生土하니 甲이 그를 쫓아 中宮에 들어가고 土生金하니 乙이 그를 쫓아 金位에 해당되고 金生水하니 丙이 그를 쫓아 水位에 해당되니 이것이 바로 억제하여 생하는 것이고 壬이 五運을 통솔하여 一周를 한 것이다.

水가 다시 生木하니 丁이 壬에 합하고 木이 다시 生火하니 戊가 癸에 합하고 火가 다시 生土하니 己가 甲에 합하고 土가 다시 生金하니 庚이 乙에 합하고 金이 다시 生水하니 辛이 丙에 합하니 이것이 바로 생하여 化하는 것이고 丁이 五運을 통솔하여 一周를 하여 두 번 돌아 天干이 끝나게 된다. 木은 震巽에 배합되고 火는 離에 배합되고 土는 艮坤에 배합되고 金은 兌乾에 배합되고 水는 坎에 배합되니 후천괘상이 아닌가

육기가 오행에 응하는 것은 火土가 서로 어긋나니 生化하는 것은 여전히 옳다.

木은 六氣의 머리가 되고 亥는 陰支가 끝나는 자리니 氣가 끝나면서 象이 변해서 또한 動해서 木을 생한다. 이로 말미암아 亥에 木을 배합하고 각각의 地支가 木을 따라 차례로 생하여 운행하게 된다.

亥는 木에 속하여 火를 생하니 子가 이를 따라 火位에 있게 되고 火生土하니 丑이 이를 따라 中宮에 들어가고 土生金이나 寅은 正支가 아니니 金位를 배속하지 못하고 右側에 있는 子 다음에 자리하여 재상으로써 임금을 쫓아 습토의 사이를 遊行한다.

卯는 土가 生함을 쫓아 金位에 해당하고 金生水하니 辰이 이를 따라 水位에 있게 되니 이것이 또한 억제하여 생하는 것이고 南政의 六氣가 一周하는 것이다.

水가 다시 木을 생하니 巳가 亥와 합하고 木이 다시 火를 생하니 午가 子와 합하고 火가 다시 土를 행하니 未가 丑과 합하고 土가 다시 金을 생하니 申은 正支가 아니니 金位에 해당하지 않고 午의 右側

11) 陸詹辰, 陸正齋원저, 王益謙정리. 運氣辯與臨證錄. 상해. 상해중의학원출판사. 1987. pp.17-18.

에 자리하여 寅과 相合하여 濕土의 사이를 遊行한다. 酉가 土를 따라 생하여 金位에 바르게 자리잡고 金이 다시 水를 생하여 戌이 辰과 합하니 이것이 또한 生하여 化하는 것이고 北政의 육기가 一周하는 것이니 두 번 濕에 地支가 끝나게 된다(經曰 制生則 化하여 (注家皆疑‘生則’二字를 顛倒나 非是라) 外列 盛衰라하니 可推演其義焉이라 木爲五運之初오 壬爲 陽干之極이라 物極을 謂之變이니 其氣動而生木이라 由是로 壬加于木하고 各干循木之遞生而行이라 壬屬 木하고 生火하니 癸循之而乘火位하고 火生土하니 甲 循之而入中宮하고 土生金하니 乙循之而當金位하고 金生水하니 丙循之而當水位하니 此卽以制而生也오 爲壬統五運一周라 水再生木하니 丁合于壬하고 木 再生火하니 戊合于癸하고 火再生土하니 己合于甲하고 土再生金하니 庚合于乙하고 金再生水하야 辛合于丙 하니 此卽以生而化也오 爲丁統五運一周하야 兩周而 天干遍이라 木配震巽하고 火配離하고 土配艮坤하고 金配兌乾하고 水配坎하니 非后天卦象歟아 若六氣之 應五行은 則火土相錯이나 而生化猶是也라 木爲六氣 之首오 亥爲陰支之終이니 氣終而象變하야 亦動而生 木이라 由是로 亥加于木하고 各支 循木之遞生而行이 라 亥屬木하야 生火하니 子循之而乘火位하고 火生土 하니 丑循之而入宮하고 土生金이나 寅非正支니 不加 金位하고 次于子右하야 以相從君하야 遊行濕土之間 이라 卯循土之生而當金位하고 金生水하니 辰循之而 乘水位하니 此亦以制而生也오 爲南政六氣一周라 水 再生木하니 巳合于亥하고 水再生火하니 午合于子하 고 火再生土하니 未合于丑하고 土再生金이나 申非正 支니 不居金位하고 次于午右하야 與寅相合하야 遊行 濕土之間이라 酉循土之生而正金位하고 金再生水하야 戌合于辰하니 此亦以生而化也오 爲北政六氣一周니 兩周而地支備라)¹²⁾

그는 오운은 壬木에서 시작하여 癸火는 水克火가 內在하고 甲土는 木克土가 內在하고 乙金은 金克木 이 內在하고 丙水는 水克火가 內在하여 制而生하며 水는 다시 木을 生하니 丁木은 木生火가 內在하고

戊火는 火生土가 內在하고 己土는 土의 本位이고 庚 金은 金의 本位이고 辛水는 金生水가 內在하여 生而 化한다고 注釋에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반부 의 운행은 상극이 主가 되고 후반부의 운행은 相生 또는 本位가 主가 됨을 알 수 있다.

육기는 亥木에서 시작하여 子火는 水克火가 內在 하고 丑土는 土의 本位이고 寅은 正支가 아니어서 子君火를 쫓아 相火가 되어 濕土사이에 유행하고 卯 金은 金克木이 內在하고 辰水는 土克水가 內在하여 또한 制而生하며 南政의 육기가 一周한 것이라 하였다. 水는 다시 木을 生하니 巳木에는 木生火가 內在 하고 午火는 火本位이고 未土는 土本位이고 申은 正 支가 아니어서 寅과 相合하여 濕土의 사이를 유행하 여 이를 제외하면 未土가 生金하게 되고 酉金은 金 의 本位가 되고 戌水는 辰과 合하여 또한 生而化하 며 北政의 六氣가 一周하는 것이라 하였다. 亥에서 辰까지는 相克이 內在하고 巳에서 戌까지는 相生이 內在하거나 本位가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반 과 후반이 역시 相生과 相克 또는 本位로 순환하는 우주의 법칙을 엿볼 수가 있다.

3. 陸懋修의 運氣에 대한 闡發

陸懋修(1818~1886)의 字는 九芝, 勉旃이고 號는 江左下工, 林屋山人이라 했으며 元和(지금의 강소성 吳縣)人이다. 선조들 모두 의술로 명성이 있었고 모 두 의학에 정통하였다. 外曾祖 할아버지인 王丙(樸 莊)은 명의였고 傷寒에 정통하였다. 陸懋修는 어려 서 과거시험을 준비했으나 여러 번 낙방을 하자 중 년에 의학에 전심전력하여 群書를 博覽하였고 드디 에 청나라 말기의 저명한 의학가가 되었다. 저서가 대단히 많은데 『世補齋醫書』 33권이 가장 유명하다. 운기와 관련된 저술로는 『세보제의서』 文一에 六氣 大司天上篇, 下篇이 실려 있고, 『內經運氣病釋』 9권, 『內經遺篇病釋』 1권, 『內經運氣表』 1卷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六氣大司天論

이 說은 외증조할아버지인 王樸莊의 說을 계승 발전시켜 장중경의 치법이 辛溫에 치우쳤고, 유하간

12) 陸儋辰, 陸正齋원저, 王益謙정리. 運氣辯與臨證錄. 상해. 상해중의학원출판사. 1987. pp.28-29.

의 치법이 寒涼에 치우쳤고, 이동원은 溫補에 치우쳤고, 주단계는 清滋에 치우쳤지만 이들의 치법이 결코 치우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六氣의 大司天論을 통하여 밝힌 것이다. 대사천은 황제8년(B.C.2697년)에 시작하는 제1갑자(下元)로부터 60년 동안 전 30년은 厥陰風木이 司天하고 후 30년은 少陽相火가 在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厥陰, 소음, 태음, 소양, 양명, 태양의 순서로 순환한다. 이로부터 漢나라 靈帝 中平 元年인 A.D.184에 이르면 49甲子(下元)가 시작되는데 이때의 대사천은 역시 厥陰風木이 司天하고 少陽相火가 在泉하게 된다. 위에서 괄호 속에 下元이라 한 것은 60년마다를 上元·中元·下元이라 하여 180년으로 하나의 주기를 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仲景은 建安中에 살았으니 中平甲子(서기 184년) 後의 二十년에 해당하고 이때는 下元에 속하며 厥陰風火가 用事를 한다. 당시에 烏附 등의 辛熱한 약을 習用했으나 風火運을 만나 치료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仲景이 桂枝, 麻黃 등의 溫劑로 中風, 傷寒의 病을 治療하고 葛根, 芎藭, 白虎, 承氣, 柏皮, 梔鼓 등의 清劑로 溫熱, 濕溫의 病을 治療하였다. 무릇 溫熱한 때를 만나면 寒涼한 약을 使用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仲景이 秋冬의 治法만 알고 春夏의 治법을 몰랐다고 말하는 者는 함께 仲景에 대해서 토론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로부터 더 내려와 宋 高宗 紹興14년(1144년)에 이르면 제 65甲子가 된다. 劉守眞이 『素問玄機』를 짓고 序文에 大定丙午(서기1186년)라 하였으니 이는 金 世宗26년, 即 宋 孝宗 淳熙13년이 되니 紹興甲子로부터 43년째로써 燥火가 用事하는 때이니 涼法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張易水是 守眞과 同時代가 된다. 李東垣은 易水의 高第로, 宋 寧宗 嘉泰4年 제66甲子 때에 살아 寒濕이 用事하던 때이므로 溫法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단계는 至元年間에 태어나서 至正年間에 卒하였으니 泰定元年의 제68甲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때는 火燥가 用事하던 때이므로 清法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이상의 三家는 또한 그 時運을 살펴볼 때 일일이 符合한다. 王海藏

의 『陰證略例』는 순전히 溫藥만 썼다. 麻革이 癸卯年(1243년)에 序文을 썼으니 金나라 乃馬貞氏가 稱制한 3년이니 즉 宋 理宗 淳祐2년(1242년, 淳祐3년이라고 해야 하다)이 되니 역시 嘉泰 甲子中에 해당한다. 또 明의 張介賓은 萬曆時人으로 溫補에만 치중하였는데 이때는 嘉靖43년(1564년)의 제72甲子에 해당하여 寒濕이 用事하던 때가 된다. 이 뒤로 吳又可가 瘟疫을 論하고 周禹載가 溫熱暑疫을 論할 때 寒涼藥을 多用하였는데 모두 天啓4년(1624년)의 제73甲子로 風火가 用事하는 때였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康熙23년(1684년)의 제74甲子 火氣運中에서 그것을 써서 효과가 크게 나타났던 것이다. 乾隆9年(1744년)의 제75甲子에 이르러 運氣가 濕寒으로 바뀌었으니 醫師들이 故轍을 답습하여 治療가 많이 어그러지게 되었다. 王樸莊先生의 『傷寒論註』는 乾隆甲寅(西紀1794年)에 완성되었는데 寒涼의 治療法이 濕土寒水의 運에 不適合하다하여 公은 溫散溫補法으로 治療하여 크게 효과를 보았다. 이는 公이 본래 大司天의 六氣에 밝아 그 때의 運氣가 寒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公과 同時代의 사람들은 溫法을 사용하는 것이 당시에 적합하다는 것은 알았으나 실지에 있어 그 까닭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후 嘉慶 9년甲子(1804년)는 제76갑자가 되어 少陽相火와 厥陰風木에 屬하게 되니 火風이 用事하는 때이다. 나는 嘉慶戊寅(西紀1818年)에 태어나서 中年以後에는 醫學에 몰두하였다. 지금의 同治3년(1864년)은 제77甲子가 되니 또 陽明燥金과 少陰君火가 用事하는 때이다. 이 때에는 上元之氣가 時期보다 빨리 이르므로 同治2년癸亥(1863年)에 上海에 있을 때 霍亂이 盛行하였는데 모두가 熱症이었다. 그런데 時醫들이 그 手足이 厥逆하다고 해서 다투어 丁附桂薑을 투여하니 그것을 복용한 자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 나는 甲子年(1864년)에 오직 石膏, 芎藭 등으로 清法을 써서 낫게 하였으며, 간혹 涼水에 膽礬을 타서 먹여 吐法을 써서 낫게 하였다. 증상은 내가 몸소 친히 경험한 것으로 病이 각각 司天을 따라 變한다는 것을 더욱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時邪들은 溫熱이

아닌 것이 없었다. 대체로 涼으로 散하고 寒으로 瀉할 때 치료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내가 만난 燥火之運에 寒涼法이 마땅했다면 風燥二火도 涼法이 적당할 것이며 寒濕濕寒에 반드시 溫法이 적당할 것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로부터 仲景의 靑龍 白虎湯을 이해할 수 있으니 그가 살았던 때가 風火가 작용하던 시대였기 때문이며, 守眞이 朱肱의 溫法을 썼던 잘못을 지적하고 다시 仲景의 用寒之治를 밝혀 三已效方과 三一承氣를 만든 것은 그가 살았던 때에 燥火가 用事했기 때문이며, 東垣이 脾胃를 爲主로 學설을 세우고 오로지 升陽만을 일삼은 것은 그가 살았던 때에 寒濕이 用事했기 때문이며 丹溪가 知柏으로 腎臟을 치료하고 오로지 補陰만을 일삼은 것은 그가 살았던 때에 또 火燥가 用事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때 古聖昔賢들의 著書立說이 모두 補偏救敝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仲景을 醫中之聖人이라고 만세에 節表가 되시는 분이다. 그의 黃芩, 白虎는 守眞이 이어받았고, 建中, 理中은 東垣이 이어받았고, 炙甘草湯, 黃連阿膠湯은 丹溪가 이어받아 補寫溫涼을 각각 그들이 처한 運氣에 따라 적용하였다. 만약 守眞이 濕寒之氣를 만났다면 결코 寒涼에 치우치지 않았을 것이고 東垣이 風燥를 만났다면 결코 溫補에 치우치지 않았을 것이며 丹溪가 寒濕之氣를 만났더라면 결코 清滋에 치우치지 않았을 것이다.

후세 사람이 그들의 책을 읽되 그들이 살았던 세상을 논하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그들을 알지 못하여 말끝마다 누구는 涼에 치우쳤고, 누구는 溫에 치우쳤다고 이르니 어느 누가 그들의 치법이 본래 잘못되지 않았는데 그들의 방법을 잘 응용하지 못하는 그 자신이 偏僻에 빠졌다는 것을 알 사람이 있겠는가? 이는 다른 이유가 없다. 오두 大司天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仲景은 當建安中하니 乃中平甲子 垂二十年時로 亦屬下元하니 厥陰風火用事라 當時에 習用烏附辛熱이나 正值風火運中하니 爲治多誤라 故仲景이 以桂枝麻黃之溫으로 治中風傷寒之病하고 卽以葛根芩連 白虎承氣 柏皮樞歧之清으로 治溫熱溼溫之病이라 凡遇溫熱이면 卽用寒涼하니 其

謂仲景이 但知秋冬하고 不識春夏者는 不足與論仲景者也라 由此以推하여 至宋高宗 紹興 十四年하면 爲第六十五甲子라 劉守眞이 著素問元機하고 序云大定丙午라하니 爲金世宗 二十六이오 卽宋孝宗 淳熙十三年으로 乃紹興 甲子之四十三年이니 燥火用事하니 亦宜於涼이라 張易水는 與守眞同時니 李東垣은 爲易水高第라 值宋甯宗 嘉泰四年하니 爲第六十六甲子하야 寒溼用事라 故宜於溫이라 丹溪는 生於至元하고 卒於至正하니 值泰定元年 第六十八甲子하야 火燥用事故로 宜於清이라 以上三家는 亦既按其時運하여 一一符合이라 卽王海藏 陰證略例는 純用溫藥이라 麻革이 於癸卯年에 序之하니 爲金乃馬貞氏稱制之三年이니 卽宋理宗 淳祐二年으로 仍在嘉泰甲子中이라 至明張介賓하니 爲萬曆時人으로 專主溫補하니 則又爲嘉靖四十三年 第七十二甲子 寒濕用事時矣라 後此에 吳又可가 論瘟疫하고 周禹載가 論溫熱暑疫에 多用寒涼하니 均值天啓 四年 第七十三甲子 風火用事時라 故在國朝 康熙 二十三年 第七十四甲子 火燥運中에 遵之多效라 至乾隆九年 第七十五甲子하야 運值濕寒하니 其氣已轉이로대 而醫循故轍하야 施治多乖라 樸莊先生 傷寒論注는 成於乾隆 甲寅이라 以寒涼之治가 謂不合濕土寒水之運이라하야 公之所治는 無不以溫散溫補로 見長하니 蓋公固明於大司天之六氣하야 而自知其所值爲濕寒也라 若與公同時人은 則但樂於用溫하니 適與時合而實不自知其所以然矣라 其後嘉慶 九年 甲子是 爲第七十有六하야 屬於少陽相火 厥陰風木하니 則爲火風之歲라 及余生於嘉慶戊寅하야 中年以後에 肆力於醫라 逮今同治三年하니 第七十七甲子로 又爲陽明燥金 少陰君火用事라 時에 上元之氣가 未至而至故로 於二年癸亥에 上海一隅에 霍亂盛行하야 盡爲熱證이로대 時醫 以其手足厥逆으로 競用丁附桂薑하니 入口卽斃라 余於甲子年에 獨以石膏芩連으로 清而愈之하고 或以涼水에 調膽礬하야 吐而愈之라 證은 以我躬親歷이오 而病之各隨司天以變者가 彌益顯然이라 自此至今은 所遇時邪가 莫非溫熱이라 大都 以涼散하며 以寒瀉者는 愈之爲多하니 以余所值燥火之運而宜寒涼이면 則風燥二火之亦宜於涼이오 寒濕濕寒之必宜於溫은 概可推矣라 由是而知仲景之靑龍白虎湯也는 以其所值爲風火也열세오 守眞이 關朱肱用溫之誤하고

申明仲景用寒之治하니 爲三已效方과 三一承氣也는 以其所值爲燥火也 열세라 東垣이 以脾胃立論하야 專事升陽者는 以其所值爲寒濕也오 丹溪가 以知柏治腎하야 專事補陰者는 以其所值又爲火燥也 열세라 明乎此면 而知古聖昔賢의 著書立說이 都是補偏救敝之人이라 仲景은 爲醫中之聖으로 師表萬世라 黃芩白虎는 卽守眞所本也오 建中理中은 卽東垣所本也오 炙甘草湯 黃連阿膠湯은 卽丹溪所本也니 補瀉溫涼이 各隨其運이라 設以守眞而遇溼寒이면 決不偏於寒涼이오 東垣而遇燥燥면 決不偏於溫補오 丹溪而遇寒濕이면 決不偏於清滋라 乃讀其書나 不論其世하고 因而不知其人하야 輒謂如某者는 偏於涼하고 如某者는 偏於溫이라 하면 孰能知法固非偏而不善用其法者之自涉於偏哉아 此無他라 皆坐不講司天故也라¹³⁾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1984년 갑자년 이후)는 79甲子이고 下元으로 厥陰風木이 司天하고 少陽相火가 在泉하는 때로 仲景시대와 같은 大司天이 작용하고 있으며 2014년 甲午年 이후는 특히 在泉하는 少陽相火가 用事하는 때임으로 이를 임상에 참고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2) 內經運氣病釋

『내경운기병석』은 「육절장상론」과 운기7편에 있는 운기관련 病證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설명한 것이다. 이 책의 특징에 대하여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으로 『내경』의 운기 病證을 전문적으로 논하고 있다.

『소문』七篇大論의 내용은 대단히 광범위하여 운기학설 외에도 천문·지리, 인체의 병증을 널리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정운기가 행하는 해의 氣候, 物候, 病候, 運氣合化, 오운의 德化政令災變, 운기의 勝復, 鬱發, 遷退升降, 운기가 일으킨 병의 치료, 用藥原則 등을 포괄하고 있다. 陸懋修는 의학과 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七篇大論 속의

운기와 질병이 연계된 내용을 뽑아 같은 것끼리 모으고 注釋, 闡發하여 운기의 병증만을 전문적으로 논한 전문서적을 완성하였다.

둘째 번거로운 것을 제거하고 간략하게 運氣病證을 분류귀납 하였다.

七篇大論 속의 병증의 내용은 복잡하고 더욱이 「六元正紀大論」 「至眞要大論」 속의 내용은 호변하다. 그는 복잡한 것은 버리고 간략하게 분류 귀납하여 운기가 일으키는 증상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예를 들어 「六元正紀大論」 속의 병증에 대해 먼저 六氣司天之政 氣化運行과 民病 특징을 제시하였고 이후에 초지기에서 중지기까지 순서에 따라 主氣의 民病 特徵을 제시했는데 疾病만을 기술하고 다른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뒤에서 다시 오운태과, 五運鬱發의 民病 및 치료원칙을 논하였다. 「至眞要大論」의 병증에 대해서는 먼저 司天, 在泉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主勝’, ‘客勝’의 증상을 나누어 기술했다. 이와 같이 겨우 수십조의 원문만 인용했지만 분명하면서도 충분히 육기 사천제천의 病證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핵심적인 말로 注釋하여 번거롭지 않게 운기의 病機를 요약 설명했다.

陸懋修의 주석은 간명하면서도 요점적으로 병증의 기전을 밝혀 의사들에게 운기가 병증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인식시켰다.

예를 들어 「기교변대론」에서 “歲土太過하면 雨濕流行하고 腎水受耶라”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五運太過의 기전으로부터 주석을 달아 “此는 言六甲陽年은 太宮運이니 土勝水하야 水受克하고 水之子木이 來復也라”하였다. 이어서 “民病은 腹痛하며 清厥 意不樂하며 體重煩冤” 등의 증상의 병기를 해석하여 “此는 土邪傷腎하야 既脾志不舒而心腎亦不交也라”고 하였다. 이어서 “甚則肌肉萎하며 足痿不收하며 行善癱하며 脚下痛”의 증상을 분석하여 “此는 土邪有餘하야 脾經自病하야 發爲痿痺也니 脾司肌肉者也일세라”라고 하였고 “飲發하며 中滿食減하며 四肢不舉”의 증상에 대해 “此는 土氣太過而水氣不行也라”하였다. 또 “腹滿漉泄하며 腸鳴”에 대해 “此는 土盛水衰하야 水氣伏而土氣獨行也라”하였고 “反下甚”에 대해

13) 陸九芝. 世補齋醫書全集上冊. 臺北. 五洲出版社. 1972. pp.28-29.

“此는 水爲土克하야 而水之子木이 以風氣로 復之也라. 木復而土病은 始則有餘而侮나 繼則侮反受耶라故로 土自病而利不止라”¹⁴⁾하여 一系別의 증후에 대해 모두 운기이론을 운용하여 병기를 분석하였고 몇마디 안 되는 주석을 통해 운기의 변화방식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태과불급 乘侮, 勝復, 鬱發, 子復母仇 등의 운기술어도 함께 설명되어 번거롭지가 않다.

넷째 前人들의 성과를 잘 활용하여 運氣病證의 치료를 보충하고 있다.

내경의 운기학설 속에는 구체적인 약과 처방이 실려 있지 않다. 陸懋修는 運氣病證의 진단과 치료 방법을 의가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제8, 제9권에서 『三因極一病證方論』 속에 있는 운기처방을 취하고 清代 繆問의 『三因司天方』의 方劑에 대한 분석을 摘錄하여 본서에 보충을 하였다. 陸懋修 본인도 운기에 대한 전문가임으로 運氣病證에 대해서 치료경험과 체득한 내용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결코 위의 두 책에 대해서 그대로 베끼지를 않고 선택하여 摘錄하고 있다. 위의 두 책의 번잡스런 논술과典故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았고 “按語”로써 자기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따라서 『內經運氣病釋』은 간단명료하면서도 실용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3) 內經遺篇病釋

『內經遺篇病釋』은 1卷으로 되어 있다. 陸懋修는 『素問』의 유편인 「本病論」과 「刺法論」의 병증에 대해서도 독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素問』에서는 ‘疫’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고 「六元正紀大論」의 初之氣에서 終之氣까지의 설명에 ‘民乃厲’(太陽之政 初之氣) ‘厲大至’(陽明之政 二之氣) ‘病溫厲(厥陰之政 終之氣)’라는 말이 있고 그 병이 ‘遠近咸若(太陰之政 二之氣)’의 증상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疫疾의 특징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後人之不識何病是疫하고 且竟以溫熱病爲疫者(후인들이 무슨 병이 역병인줄 모르고 또한 마침내 온열병을 역병이라고 생각했다)”¹⁵⁾고 하였다. 그는

이 두편에서 논한 五疫이 “眞是論疫之原”이라고 생각하여 “今特附刊于病釋七篇之後는 以明欲辨瘟疫者는 亦甚賴有此二篇也라(이제 특별히 운기7편의 病釋 뒤에 붙여서 간행하는 것은 온역을 구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또한 이 두편이 있는 것이 대단히 도움이 됨을 밝힌 것이다)”¹⁶⁾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一卷을 지어서 『內經遺篇病釋』이라고 하였다. 이 책속에는 病症의 원문에 대해서 注釋을 단 것 외에 또 木疫·火疫·土疫·金疫·水疫의 五疫의 推算과 운기의 기전을 나누어 기술하였다. 그는 특히 온역의 발생시간을 중시하여 주로 運과 氣사이의 陰陽剛柔관계가 失調될 때 나타난다고 인식하였다. 즉 전년도의 司天之氣가 未退位하고 本年 中運에서 勝氣가 나와 上下氣運의 위치가 서로 어긋나 氣運이 ‘失守’하면 ‘天運化易’하여 이상기후가 나타나 온역이 유행할 수 있는 기후조건이 이루어지고 이 뒤 3년쯤 온역이 폭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吳崑이 이 두편은 본래 疫病을 논한 것이지 일반적인 溫熱을 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드디어 허탄하게 여겨 비난하고 버려버린 것¹⁷⁾에 대해서 통박을 가하고 있다.

4) 內經運氣表

1卷으로 되어 있으며 五運經天表 제1부터 司天在泉勝復補瀉合表 제13까지 모두 13개의 표와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內經運氣表』를 만든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운기학은 그림(圖)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 前人들중에서 『내경』에 注를 달은 자들은 매양 이해하기 어려운 곳에는 사이사이 그림을 삽입하였다. 송나라의 유온서는 『素問入式運氣論奧』에서 29개의 그림을 그려 넣었고 명나라 장개빈은 『類經圖翼』을 만들어 48개의 그림을 그리고 論說을 덧붙여 상세

14) 陸懋修著, 周國琪, 李海峰校注. 內經運氣病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pp.4-5.

15) 陸懋修著, 周國琪, 李海峰校注. 內經運氣病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p.88.

16) 陸懋修著, 周國琪, 李海峰校注. 內經運氣病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p.101.

17) 陸懋修著, 周國琪, 李海峰校注. 內經運氣病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p.101.

함을 더하였다. 그러나 圖와 說이 많을수록 이해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圖보다는 表가 더 적합한 경우가 있다.

나는 그리하여 圖대신 表를 만들었다. 民病이 氣交로 인한 것과 氣交를 치료하는 방법 등은 검토하고 조사하는데 편리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表를 만들지는 않았다¹⁸⁾

『內經運氣病釋』 『內經遺篇病釋』 『內經運氣表』의 三書는 처음으로 『내경』에서 논술한 오운육기의 변화가 인체에 일으키는 病變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운기학설의 애매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였고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의사들이 정확하게 운기이론을 임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3권 모두 중요하게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는 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Ⅲ. 운기에 관한 찬반논쟁

청나라 시대에도 운기에 대해서 신뢰하여 믿고 따르는 찬성과 의가와 운기의 이치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아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절충파 의가 그리고 운기학설을 완전히 부정하는 부정파 의가 등 다양한 의견들이 대두하였다. 청나라 시대 때 운기에 관한 사상적 조류를 살펴보고 운기학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기 위하여 각각의 대표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찬성과 의가

吳瑭은 『醫醫病書』의 「氣運論」에서 오운육기에 정통하면 질병은 미연에 예측할 수 있는 오묘함이 있다고 하여 오운육기설을 절대적으로推崇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운육기의 이치는 천지가 운행하는 자연스러운 도이다. 송나라 사람이 위서가 아닌가 의심한 것은 대개 세심하게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경』

에서 운기를 논한 제편은 마땅히 『周易』 『예기·월령』과 참고해서 볼 것이다. 총괄해서 말하면 천지의 음양은 하나의 기가 유행하는 것이고 나누어서 말하면 양의·사시·오행·육기·칠정·팔풍이 서로 유행하고 對待의으로 制化하여 만물을 화생하는 것이다. 하늘에서는 원래 사람을 손상시키지 않으나 사람의 몸과 氣에 편벽됨이 있어 相克하는 기운을 접촉하면 병이 생긴다. 예를 들어 양허한 자는 濕·燥·寒의 陰邪에 쉽게 손상되고 음허한 자는 風·火·暑의 陽邪에 쉽게 손상된다.

운기의 이치에 정통하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오묘함이 있으니 때때로 그 기운이 이미 이르렀는가, 아직 오지 않았는가, 태과한가, 불급한가를 체험하여 알 수 있다. 어느 것이 勝氣이고, 어느 것이 中見之氣이고, 어느 것이 化氣이고 어느 것이 復氣인가를 알고 다시 邪氣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邪氣가 없는가를 살펴봄에 허증을 보하고 실증을 사하는 공력을 쓰게 되면 임상을 할 때 스스로 기준을 두는 것이 있게 될 것이다.(五運六氣之理는 天地運行自然之道라 宋人이 疑爲僞書者는 蓋未細心體驗也라 『內經』論氣運諸篇은 當與『大易』, 『月令』參看이라 統言之면 天地陰陽은 一氣之流行也오 分言之면 則有兩儀, 四時, 五行, 六氣, 七政, 八風이 相爲流行하고 對待制化하여 以化生萬物者也라 在天然未傷人이나 在人之體氣 有偏하여 觸其相克之氣而病이라 如陽虛者는 易傷濕, 燥, 寒之陰邪오 陰虛者는 易傷風, 火, 暑之陽邪也라 精通氣運之理면 有先知之妙니 時時體驗其氣之已至, 未至, 太過, 不及이라 何者爲勝氣며 何者爲中氣며 何者爲化氣며 何者爲復氣하고 再用有者求之하고 無者求之하며 微者責之하고 盛者責之之功이면 臨症에 自有准의이라)¹⁹⁾

오당은 『내경』의 운기는 『周易』과 표리가 되어 천지기운이 운행하는 원리를 나타낸 것임으로 운기에 정통하면 질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하여 운기이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다.

18) 陸懋修著, 周國琪, 李海峰校注. 內經運氣病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p.102.

19) 吳鞠通著, 沈鳳閣校注. 醫醫病書.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p.2.

2. 절충과 의가

馮兆張은 『錦囊秘錄』의 「運氣論」에서 자신의 운기에 관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오운에 태과불급이 있으니 태과한 것은 甲·丙·戊·庚·壬의 오양간의 해이고 불급한 것은 乙·丁·己·辛·癸의 오음간의 해이다. 왕빙이 말하기를 “하늘이 기를 퍼는 것은 오행을 벗어나지 않고 사람은 氣속에 있으니 어찌 천도에 응하지 않으리오”하니 그러므로 운기의 음양의 성쇠를 따르는 것은 이치의 자연스러운 것이다. 『내경』에서 “그 해의 간지와 기의 성쇠와 허실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의사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운기의 이치에는 또는 구에 받아서는 안 된다. 또 병에는 내인과 외인이 있어 수시로 감축이 되니 비록 태과한 운을 당했으나 또한 不足한 때가 있고 불급한 운을 당했으나 또한 有餘한 걱정이 있을 때가 많다. 만약 오로지 운기에만 집착한다면 능히 실증을 실하게 하고 허증을 허하게 하며 부족한 증상을 사하고 유역한 증상을 보하는 것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歲氣가 천지에 있을 때 또한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때가 있다. 그러므로 겨울에 정상이 아닌 따뜻함이 있고, 여름에 때 아닌 추위가 있으며, 봄에 때 아닌 건조함이 있고 가을에 때 아닌 온난함이 있으니 이를 범하면 병이 생긴다. 또 예를 들어 봄기운은 서쪽으로 가고 가을기운은 동쪽으로 가고 여름기운은 북쪽으로 가고 겨울기운은 남쪽으로 가며 낮은 땅에 봄기운이 항상 운행하고 높은 언덕에 겨울기운이 항상 있게 된다. 하늘은 서북쪽이 부족하여 바람이 많이 불고 땅은 동남쪽이 차지 않아 습기가 많으며 백리의 안에 개고 비오는 것이 다르고 천리의 밖에 춥고 따뜻함이 각각 구별되어 방위와 땅이 다름에 병도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는다. 비록 서북쪽이 진실로 두터우나 어찌 능히 사람마다 다 실증이 되며 동남쪽이 진실로 얇으나 어찌 능히 사람마다 다 허증이 되리오. 또 예를 들어 오랫동안 가뭄이 들면 양기가 亢盛하고 오랫동안 비가 오면 음기가 亢盛한다. 양기가 성한 사람은 가을·겨울은 잘 견디지만 봄·여름은 견디지 못하고 陰寒한 것을 좋아하고 陽暄한 것은 싫어하며 음기가

성한 사람은 봄·여름은 잘 견디지만 가을·겨울은 견디지 못하고 精明한 것은 좋아하고 陰雨를 싫어하니 이것은 天氣가 정상적인 것과 달리 나타나고 사람마다 품부 받은 기운이 각각 다르니 또 법칙 밖의 남긴 것이 된다. 운기를 잘 말하는 자가 기틀에 따라 변화를 관찰한다면 바야흐로 古人이 말하지 아니한 뜻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五運에 有太過하며 有不及하니 太過者는 甲, 丙, 戊, 庚, 壬五陽干也오 不及者는 乙, 丁, 己, 辛, 癸五陰干也라 王冰曰 蒼天布氣는 尚不越乎五行하고 人在氣中하니 豈不應乎天道리오 하니 故로 隨氣運陰陽之盛衰는 理之自然也라 『經』曰 不知年之所加와 氣之盛衰와 虛實之所起면 不可以爲工이라하니라 雖然이나 運氣之理는 亦不可泥라 又有 內外兩因하야 隨時感觸하니 雖當太過之運이나 亦有 不足之時하며 不及之運이나 亦多有餘之患이라 倘專泥運氣면 能無實實虛虛하고 損不足而益有餘乎아 況 歲氣之在天地에 亦有反常之時라 故로 冬有非常之溫하며 夏有非時之寒하며 春有非時之燥하며 秋有非時之暖하니 犯之者病이라 又如春氣西行하고 秋氣東行하며 夏氣北行하고 冬氣南行하며 卑下之地에 春氣常行하고 高阜之境에 冬氣常在라 天不足西北 而多風하고 地不滿東南 而多濕하며 百里之內에 晴雨不同하고 千里之外에 寒暄各別하야 方土不齊에 而病亦因之라 雖然 西北固厚나 安能人人皆實이며 東南固薄이나 安能人人皆虛리오 且如久旱則亢陽하고 久雨則亢陰이라 陽盛人은 耐秋冬而不耐春夏하고 喜陰寒而惡陽暄하며 陰盛人은 耐春夏而不耐秋冬하고 喜精明而惡陰雨니 此乃天氣變常하고 人稟各異하니 又爲法外之遺也라 善言運氣者는 隨機觀變이라야 方得古人未發之旨라)²⁰⁾

풍조장은 왕빙과 『내경』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운 육기의 설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四時에는 不正之氣가 있기도 하고 地理에는 高下와 동서남북의 구별이 있으며 사람마다 품부 받은 체질이 모두 다르므로 기계적으로 운용해서는 안 되고 法外之遺와 古人未發之旨를 터득하여 율동

20) 田思勝主編. 馮兆張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p.87.

성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否定派 醫家

부정과 의가의 대표적인 사람은 張倬이라고 말할 수 있다. 張倬의 字는 飛疇이고 청대 초기의 명의 張璐의 둘째 아들이다. 그는 『傷寒兼證析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속담에 이르기를 “오운육기를 읽지 않으면 의서를 두루 검토할지라도 무엇을 구체할 수 있으리오” 하니 따라서 의학의 이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은 걸핏하면 운기를 공부하는 것으로 일을 삼는다. 그러나 「天元氣大論」 등 편은 본래 소문의 원문이 아니니 왕빙이 『陰陽大論』을 취하여 경문 속에 보입한 것임을 어찌 알리오. 후세에 옛 성인의格言으로 여기니 누가 감히 비난할 수 있으리오. 사실상의 의도와는 무관한 것이다. 하물며 論 속에서 분명하게 “때는 항상 하는 자리가 있지만 기운은 기필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오히려 그것에 의지해 상세하게 논하는 것은 그 이치를 궁리하는데 불과할 따름이다. 비록 勝復이 常道가 있고 남정북정이 나누어지지만 사방에는 高下의 다름이 있고 사시에는 때 아닌 변화가 있으며 백발자국의 안에 날이 개고 비 오는 不同함이 있고 천리의 밖에 춥고 따뜻함이 각각 다르니 어찌 가히 一定한 法으로 非常한 변화를 헤아릴 수 있으리오. 그러므로 내가 겨우 운기의 規例만을 취하여 그 뜻을 해석하여 참고에 제공하고자 한다(諺云 不讀五運六氣면 檢遍方書나 何濟리오하니 所以稍涉醫理者는 動以司運爲務라 曷知天元紀等篇은 本非『素問』原文이니 王氏가 取陰陽大論하여 補入經中이리오 后世에 以爲古聖格言하니 孰敢非之리오 其實無關於醫道也라 況論中에 明言 時有常位而氣無必然이라하니 猶諄諄詳論者는 不過窮究其理而已라 縱使勝復有常 而政分南北이나 四方有 高下之殊하고 四序有非時之化라 百步之內에 晴雨不同하고 千里之外에 寒暄各異니 豈可以一定之法으로 而測非常之變耶아 故로 余僅取司運規例하여 詳釋其義以資顧問이라)21)

張倬의 주장은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의학의 이치에 정밀하지도 못하면서 운기를 중요하게 말하는 자들의 무지함을 비평하고 있다. 둘째, 七篇大論은 『素問』의 원문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지리에서 四方과 高下의 다름이 있고 百步와 千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기에서 말하는 각종 규율성은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첫째와 둘째는 제외하고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해보면 운기편에서 “四方高下之殊와 百步千里之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素問·五常政大論』에서 명확하게 운기에서는 地理와 方位의 차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연구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東南方은 陽也니 陽者는 其精이 降於下라 故로 右熱而左溫하고 西北方은 陰也니 陰者는 其精이 奉於上이라 故로 左寒而右涼이라 是以로 地有高下에 氣有溫涼하니 高者는 氣寒하고 下者는 氣熱이라”22)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一州之氣라도 生化壽夭不同하니 其故는 何也오 岐伯曰 高下之理는 地勢使然也니이다”23)

“故로 治病者는 必明天道地理와 陰陽更勝과 氣之先後와 人之壽夭와 生化之期라야 乃可以知人之形氣矣니이다”24)

天道·地理·氣化, 인체의 체질 등등은 모두 질병을 일으키는 因素가 됨으로 이들 모든 因素를 종합하여 질병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의 책에서 운기의 規律(司運規例)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설명한 것을 보면

21) 張氏慶等主編, 張璐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30.
22) 홍원식. 정교황제내경.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1. p.145.
23) 홍원식. 정교황제내경.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1. p.145.
24) 홍원식. 정교황제내경.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1. pp.145-146.

그도 운기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만은 하지 않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IV. 청대에 간행된 운기서적

청대에 간행된 운기관련서적을 모아 表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주된 내용은 嚴世云이 지은 『中國醫籍通考』를 참고하였고 빠진 것은 필자가 추가하였다.

Table 1. Five Circuirs And Six Qi Books published in the Qing Dynasty(청대에 간행된 운기서적)

서명	저자	卷數	存佚	비고
運氣纂要圖說	元仲	3卷	存	日本 貞享 元年(1684)刻本이 있음
運氣門滙考	陳夢雷, 蔣廷錫等	11卷	存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에 보임
五運六氣瘟疫發源	馬印麟		存	清 雍正三年 乙巳(1725)刊本이 있음
運氣要訣	吳謙等	1卷	存	『醫宗金鑑』 속에 있음
醫原圖說	金理	2卷	存	清 乾隆23년 戊寅(1758)自序刻本이 있음
氣運摘要	嚴潔		存	『盤珠集』에 보임
運氣要訣	翁藻		存	『醫鈔類編』에 보임
運氣掌訣錄	曹樂齋	1卷	存	이 책은 『仲景全書』에 收載되어 있다
運氣解	黃元御		存	『醫學摘粹』에 보임
運氣要略	朱咏清		存	『醫理元樞』에 실려 있다
醫易引端	李雨村		存	抄本
內經運氣病釋	陸懋修	9卷	存	『世補齋醫書』에 있음
內經遺篇病釋	陸懋修	1卷	存	『世補齋醫書』에 있음
內經運氣	陸懋修	1卷	存	『世補齋醫書』에 있음

氣表				음
素問運氣圖說	薛福辰		存	清 同治九年 庚午(1870)刊本이 있음
運氣學要	陳在山		存	清 光緒八年 壬午(1882)抄錄이 있음
五運六氣全圖要訣	佚名	1卷	存	趣濂의 『醫門補要』 속에 收載되어 있음
運氣指掌	高思敬		存	『高懸雲外科全書』에 있음
素問運氣淺說	朱恩華	1卷	存	清 光緒32(1906)商務印書館 鉛印本이 있음
運氣紀要	崔澹庵		存	『却病延年全書』에 있음
運氣辯	陸儋辰	1卷	存	1920年 石印本(『海陵叢刊』本)이 있음
運氣表	陳虯著, 胡鑫輯		存	『利濟元經』에 보임
運氣論	汪九峰		存	抄本
素問運氣鈔	佚名	3卷	存	日本 銅活字 印本이 있음
運氣口訣	佚名		存	抄本
運氣精華	佚名	1卷	佚	『文淵閣書目』一部 一冊, 『錄作堂書目』作1卷
時疫溫病氣運徵驗論	李天池		存	維新印務局印
內經氣化篇	韋格六(貫一山人)		存	1927년 安慶 同德醫院 鉛印本
五運六氣眞訣	朱雨琴		存	1912년 抄本이 있음
慈航集三元普濟方	王勳	2卷	存	1799년 간행

청대 운기 연구의 경향을 보면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내경』의 운기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리로 陸懋修의 『內經運氣病釋』, 『內經運氣表』, 薛福辰의 『素問運氣圖說』, 朱恩華의 『素問運氣淺說』, 佚名氏의 『素問運氣鈔』, 韋格六의 『內經氣化篇』 등

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온열병, 瘟疫 등을 운기와 연관시켜 연구한 것으로 馬印麟의 『五運六氣瘟疫發源』, 陸懋修의 『素問遺篇病釋』, 李天池의 『時疫溫病氣運徵驗論』, 王勳의 『慈航集三元普濟方』 등이 있다.

셋째, 새로운 운기이론을 주창한 것인데 陸懋修의 『世補齋醫書』 속의 대사천론, 南北政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陸儋辰의 『運氣辯』 등이 있다.

넷째, 歌訣의 형식으로 운기를 설명한 것으로 吳謙의 『運氣要訣』, 翁藻의 『運氣要訣』 등이 있다.

V. 결론

清代의 운기학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청대 운기학의 연구 경향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내경』의 운기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리로 陸懋修의 『內經運氣病釋』, 『內經運氣表』, 薛福辰의 『素問運氣圖說』, 朱恩華의 『素問運氣淺說』, 佚名氏의 『素問運氣鈔』, 韋格六의 『內經氣化篇』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온열병, 瘟疫 등을 운기와 연관시켜 연구한 것으로 馬印麟의 『五運六氣瘟疫發源』, 陸懋修의 『素問遺篇病釋』, 李天池의 『時疫溫病氣運徵驗論』, 王勳의 『慈航集三元普濟方』 등이 있다.

셋째, 새로운 운기이론을 주창한 것인데 陸懋修의 『世補齋醫書』 속의 대사천론, 南北政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陸儋辰의 『運氣辯』 등이 있다.

넷째, 歌訣의 형식으로 운기를 설명한 것으로 吳謙의 『運氣要訣』, 翁藻의 『運氣要訣』 등이 있다.

2. 吳謙이 지은 『운기요결』은 七言八句의 歌訣형식으로 대의를 제시하고 주석을 통해 상세한 설명을 가하였는데 『의종금감』이 청대 御醫들의 교과서가 되었으므로 후세의사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3. 陸儋辰은 『운기변』을 지어 黃道の 南緯에 해당되

는 亥子丑寅卯辰이 南政이 되고 황도의 北緯에 해당되는 巳午未申酉戌이 北政이 된다고 하였으며 특히 河圖, 洛書, 天干, 地支를 運氣와 결합시켜 깊은 연구를 하였다.

4. 陸懋修는 『내경운기병석』, 『내경유편병석』, 『내경운기표』 등을 지어 『내경』의 운기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였으며 특히 그의 외증조 할아버지인 王樸莊이 創始한 六氣大司天 이론은 闡發하여 장중경, 유수진, 이동원, 주단계, 장경악 등이 사용한 처방이 대사천이론과 부합함을 설명하였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대사천이론이 실제임상에 부합함을 역설하고 있다.

5. 청대에도 운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찬성과 의가와 반대하는 부정과 의가, 그리고 운기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절충과 의가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찬성과의 대표의가로는 吳賡 등이 있고 절충과의 대표의가로는 馮兆張이 있고 부정과의 의가의 대표로는 張倬이 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대전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References

1. Hong WS. Junggyo HwangJeNaeGyeongSomun. Seoul. Dongyanguihakyeonguwon. 19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2. Liu JZ. Shibuzhaiyishu Quanji Shangce. Taibei. Wuzhou Chubanshe. 1972. 陸九芝. 世補齋醫書全集上冊. 臺北. 五洲出版社. 1972.
3. Lu DC, Liu ZZ original work. Wang YQ ed.. Yunqibianyulinzhenglu. Shanghai. Zhongyixueyuan Chubanshe. 1987. 陸儋辰, 陸正齋原著, 王益謙整理. 運氣辯與臨證錄.

- 上海. 中醫學院出版社. 1987.
4. Lu MX, Zhou QQ, Li HF. annot.. NeiJing Yunqibingshi. Beijing. Zhongguo Zhongyiyao Chubanshe. 2015.
陸懋修著, 周國琪, 李海峰校注. 內經運氣病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5. Tian SS. FengZhaoZhang Yixuequanshu. Beijing. Zhongguo Zhongyiyao Chubanshe. 1999.
田思勝主編. 馮兆張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p.87.
 6. Wu JT, Shen FG annot.. Yiyibingshu. Nanjing. Jiangsu kexuejishu Chubanshe. 1985.
吳鞠通著, 沈鳳閣校注. 醫醫病書.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7. Wu Q. Yuzuan Yizongjinjian. Seoul. Bupinmunwhasa. 2006.
吳謙等編. 御纂醫宗金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6.
 8. Wu QZ, Zhao XY ed.. Sizhenyunqixinfayaojue. Beijing. Zhongguo Yiyaokeji Chubanshe. 2012.
吳謙著, 趙曉魚整理. 四診運氣心法要訣.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2.
 9. Zhang MQ et al.. dengzhubian. ZhangLu Yixuequanshu. Beijing. Zhongguo Zhongyiyao Chubanshe. 1999.
張民慶等主編. 張璐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